

트트트 신한 193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18
01



Globalization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의 힘!

- Question 1 - 2018 사무식·신년하례예배
- Question 2 - 2017 신한류 갈라쇼
- Question 3 - 2017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 Question 4 - 2017 신한대 경원선 국제 평화 사이클 대회

- 스토리가 있는 人.知.軍.락(인지군락) 콘서트
- 전 의정부 시장 김문원 석좌교수 인터뷰
- 2017 신한대 학술제
- 제1회 공연예술학과 K-POP 졸업 퍼포먼스
- 패션디자인전공, 패션산학협력프로젝트 품평회

(주)골드론의 뜻있는 기부
Culture 강연 · 전시 · 서평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독특'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총장 김병욱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Tel. 031 870 3266
• 발행일 2018. 01. 03 • 편집주간 이선민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박은영 기자
• 디자인·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 02-325 3405 • 정가 8,000원

Contents

01_US.KOREA.SOL.1010.599.GX
02_신한 The 센세이션
04_신한과 Honor
06_2018 시무식·신년하례예배
10_2017 신한류 갈라쇼
16_2017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20_2017 신한대경원선국제평화사이클대회
24_스토리가 있는 인지군락 콘서트
26_김문원 석좌교수 인터뷰
28_2017 신한대 학술제
32_공연예술학과 K-POP 졸업 퍼포먼스
34_패션산학협력프로젝트 품평회
36_신한인 다독상 시상식
38_㈜골드론의 뜻있는 기부
40_교수칼럼-윤상길 교수
42_Culture 강연·전시·서평
48_신한국인 Super Star
50_이모저모
56_대학발전기금
58_편집후기

SHINHAN UNIVERSITY SOLU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 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 2018 수시모집 4년 연속 경기북부 1위!
-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1010-599-GX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신한, The 센세이션!

신한과 Honor(명예), 知(이해)와 배움



Global University

- 2017 신한류 갈라쇼, 문화 Collaboration
- 최고의 스트릿댄서를 가리는 꿈의 무대, 2017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Local & SHU

- 2017 신한 경원선 국제 평화 사이클 대회
- 음악과 교육의 만남, '스토리가 있는 人.知.軍.락(인지군락) 콘서트'



Inside

- 2018 시무식·신년하례예배
- 신한대학교 석좌교수 김문원 前 의정부 시장 Interview



SHU student

- 흥미와 취업을 한번에! 2017 신한대 학술제
- 제1회 공연예술학과 K-POP 졸업 퍼포먼스, Neo core & New one
- 디자인학부 패션산학협력프로젝트 품평회
- 신한인 다독상 시상식



Happiness

- ㈜골드론의 뜻있는 기부, 신한대학교에 장학금 1000만원 전달



Question

- 언론학과 학과장 윤상길 교수 Column : 참여와 커뮤니티



Culture

- 강연 :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학술제 초청강연 <생각 즐기기>
- 전시 : 클로드 모네 <모네, 빛을 그리다>
- 서평 : 김애란 단편소설 <달려라, 아비>

신한과 Honor(명예), 知(이해)와 배움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를 생활의 목적으로 삼았다. 알다시피 부와 권력만이 명예가 아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는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 명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와 덕을 쌓는 지식의 상아탑, '대학'에서 명예를 얻곤 한다. 우리는 청춘의 시기에 지식의 상아탑아래 있다. 젊은 지성인이 갖는 명예는 '좋은 배움'이다.

이탈리아의 화가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에는 인류에 길이 남은 철학자와 수학자들이 대거 등장한다. 이 학자들의 명예는 부와 권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들이 추구한 명예는 지성과 배움이었다. 그림 속 명예로운 학자들이 모인 학당은 지식의 전당이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지식의 전당'이 되고 그 안에서 명예를 쌓는 곳은 '대학'이며 우리는 이 안에서 역사에 길이 남은 명예로운 학자들과 같이 지와 배움을 쌓고 있다. 신한대학교에서 4년이라는 시간동안 얻는 배움은 단지 학문만이 아니다. 교수님의 진심어린 가르침,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깨달음, 경험을 통해 얻는 통찰 등 하루하루를 배움 속에서 살고 있다. 스스로가 이런 자신을 자랑스러워 할 필요가 있다.

남들이 인정하는 명예만이 명예일까? 좋은 스펙의 사람들은 집단 내에서 인정받기 수월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스펙만으로는 명예를 얻을 수 없다. 명예는 곧, 그 사람의 덕목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른 지성인의 자세를 추구하는 신한대학교에서 함께 자란다. 타인이 인정하는 명예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명예롭게 여기는 것이다. 신한대학교에 재학하고 공부하면서 얻는 소중한 지식들을 양분으로 성장해가는 신한인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박은영 편집장>

Honor

Understand

Learning



편제완성 후 다시 시작하는 한해 믿음의 반세기 새롭게 출발하자!

2018시무식·신년하례예배 ‘신한가족’ 등 500여명 참석
김병옥 총장 “기본역량진단대비 ‘동행의식’ 가져달라” 당부

신한대학교는 1월 2일 의정부캠퍼스 에벤에셀관 컨벤션홀에서 2018 시무식·신년하례예배를 갖고 종합대학 4년 편제를 완성 이후 첫 해를 맞아 용기와 지혜를 한데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시무식에는 김병옥 총장, 신흥학원 안현수 이사장, 교수 및 교직원 등 ‘신한가족’과 신흥학원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가 설립한 김천대학, 신안산대학 등 유관 교육기관과 교회 및 보육시설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대홍 행정지원처장의 사회로 열린 시무식은 김용섭 목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해 김병옥 총장의 신년사, ‘2017 신한 Hot Issue’ 동영상 상영, 교가 함께 부르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장형성 교무연구처장의 사회로 가진 신년하례예배는 안홍교회 김원용 목사의 기도,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인 안현수 목사의 설교, 김병옥 총장의 인사말, ‘2017 신한 Hot Issue’ 동영상 상영, 로고스합창단 특송, 신흥학원 이사 박종선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로 종합대학 편제를 완성했지만 올해는 이를



더 세션

바탕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지금, 자긍심과 열정으로 새로운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우수한 인재가 꿈꾸는 수도권의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게 하자”고 다짐했다. 김병옥 총장은 신년사에서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한해를 시작하는 올해는 지난 4년의 시련을 딛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첫 해이며 종합대학 도약의 징표가 되는 기본역량진단에 대비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종합대학으로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야 하는 한 해”라고 밝히고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 4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신한대학의 성곽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곽이 되도록 ‘동행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장은 또 “우리 대학은 지난 4년 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여 지역사회의 중심대학으로 확실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자부한다”며 올해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한해가 되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신년하례예배 인사말에서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크게 믿으며 작은 것도 중히 여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지금의 신한대학교를 이룩하였다. 지난 반세기의 성취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른 것처럼, 앞으로 반세기든 하나님의 뜻이 신한대학교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반도의 우수대학, 세계 속의 우수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기도로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김병옥 총장 신년사 및 신년하례예배 인사말

동행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으로 걷는 것



성경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네 시작은 미비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에서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음으로써 그 뜻에 따라 말씀을 실천하면, 큰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작은 것도 중히 여겨 지금의 신한대학교를 이룩하였습니다. 신흥학원 설립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면서 오늘의 학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크게 믿었으며 믿는 대로 지금의 신한대학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지난해 종합대학 편제를 완성한 신한대학은 지난 4년 동안 내실을 다진 종합대학으로 우뚝 섰습니다. 교육현장은 어제의 교육현장이 아닌 창조의 현장으로 진화하였으며 대학의 학풍은 어제의 학풍이 아닌 미래를 넘보는 학풍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한대학교의 새 역사를 펼치고자 합니다. 지난 반세기의 성취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른 것처럼, 앞으로 반세기든 하나님의 뜻이 신한대학교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반도의 우수대학, 세계 속의 우수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기도로서 힘을 모을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서 도약의 한해를 시작하는 올해 1년은 지난 4년의 시련을 딛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첫해입니다.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동행의식’입니다. 동행은 단순히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걸을 때 신한대학이 지향하는 ‘New-verity’라는 미래전략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4년 동안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여 지역사회의 중심대학으로 확실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올해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한대학교는 올해 해외대학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학문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여 세계 속의 대학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봉사와 소통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주는 퇴보와 퇴영으로 가는 필요조건이라고 합니다. 지난 4년의 노력에 안주하지 맙시다.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주저하지 맙시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목표와의 거리는 좁혀질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기울인 열정과 노력이 함께 손을 잡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력으로 작용할 때 신한대학의 성곽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곽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안현수 목사 신년하례예배 설교

우리 앞에 당한 경주 (히브리서12:1-3)

먼저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신흥학원과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우리 대학의 이사로 섬기다가 이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설립자이신 강신경 목사님의 기도로 세워진 우리 학교이기에 저도 기도하면서 강 목사님의 지성과 영성을 갖춘 신한인을 배출하는 설립정신에 따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는 마음으로 승낙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 40년 가까이 대학에서 교수로 그리고 지금은 포스텍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도연 총장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저 역시 공감을 하며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소개를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 대학들은 이대로 가면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망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대학은 이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서울에서 멀고 벚꽃이 먼저 피기 시작하는 남쪽 지방부터 대학들이 무너져 갈 것이라는 그의 이야기는 지방대학들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대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그가 속한 대학도 다른 대학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대학정원보다 학생이 1만 명 가량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학생 수만 따지면 지금부터 7, 8년 뒤에는 우리나라 대학 절반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

상은 이미 초등학교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서울 시내 한 사립초등학교가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 폐교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학부모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던 학교인데 말입니다. 김 총장은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할게 아니라 스스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업과 창직을 통하여 부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이 자율주행 업체 모빌아이를 창업해 17조원의 부와 4,000명의 고용창출을 이룩한 사례를 모델로 삼고 대학을 경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년 초에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아쉽지만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말합니다. 2018년이라는 경주 장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그러면 이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박은영 편집장>

안현수 목사(신흥학원 이사장, 수지 광성교회 담임목사)

- 장로회신학대와 대학원, 한양대 대학원 졸업
- 미국 맥코믹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취득
- 인덕대·송실대·서울여대 강사·법무부 교정위원
- 2011년~ 신흥학원 이사, 2013년~ 장로회 신학대 이사 역임

01/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는 경주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합니다. 경주자가 무거운 것을 걸치거나 얽매는 것이 있으면 경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대학시절 체육대회 때 마라톤을 몇 번 뛰어 본 적이 있는데 입고 있는 티셔츠도 운동화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난해를 보내면서 벗어버려야 할 것 있어야 할 것, 경주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나의 실수도, 인간관계에서 온 아픔도, 심지어 내가 거친돌이 되었던 것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02/ 꺾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대학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성과 영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성과 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성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지지만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살아간 사람은 성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불평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 학교를 위하여 유익한 일인지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우리 신한의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2018년 새해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려가 더욱 전진하는 우리 신흥학원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고백과 함께 기독교인이 된 이어령 박사의 새해를 여는 이어 기도문을 읽어 드립니다.

소원서

이어령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

다들이 앓아 있을 때 걷고
그들이 길으면 뛰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오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 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동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겹 없는 자들의 키가 한 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애(千仞斷崖)의 나락입니다
비상(非常)은 비상(飛翔)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 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 하소서...
뒤쳐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 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 가며
대열을 이끌어 간다는 저 신비한 기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개 하소서



ShinhanRyu Culture Collaboration 2017 신한류 갈라쇼 START>>

디자인예술대학 - IT융합공학부 6개 전공 협력 공연 형식 진행

신한류 패션위크 · 신한류 스트리트댄스 콘테스트 이은 또 하나의 신한류 이벤트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공연예술학과 연기전공
공연예술학과 K-POP전공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뷰티헬스전공
IT융합공학부 컴퓨터전공

ST-ART = Star + Art
- Star 빛나는 신한대학교 학생들
+ Art 갈라쇼, 하나의 예술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은 협력, 합작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 간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작품을 일컫는다. 기업에서는 주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한다. 예술과 공산품을 연결한 상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콜라보레이션의 대표적인 예이다. 디자이너들이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 콜라보레이션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인류는 영국에서 엔진·철도·직물기계·석탄을 기반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을 거쳐 석유·자동차·전기를 기반으로 한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지금 로봇·바이오·인공지능·빅데이터·가상현실이 중심이 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대학교육도 융합과 종합화를 추구하는 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 요구되었던 특정분야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대학의 고등교육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게 되어 지식도, 기술도, 산업도 분화 또는 전문화보다는 융합과 종합화의 길을 가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각 전문 분야의 지식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력한 것이 되기 쉽다”고 밝히고 “오늘의 문화사회적 상황은 여러 문제들이 서로 결합하여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시대에는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고 예술과 공학이 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방식도 종합적일 수밖에 없다.

신한대학교가 11월 24일 제1회 신한류 갈라쇼를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정부캠퍼스 벤엘관 대강당에서 열린 갈라쇼는 신한류 패션위크, 신한류 스트리트댄스 콘테스트 등 신한대학교가 그동안 개척해온 신한류의 연장선상에서 열렸다는 의미와 함께 신한대학교가 지향하는 융·복합 교육의 상징이자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신한대학교 학생들을 지칭하는 'Star'와 예술을 표현하는 'ART'를 결합해 'ST-ART(스타트)'로 명명된 이번 행사는 디자인예술대학과 IT융합공학부의 협력으로 제작된 합동 문화콘텐츠를 영상위주로 진행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 콜라보레이션을 익히려는 학생들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공연은 패션디자인전공의 패션쇼와 공연예술학과와 단만극 연기, 보컬, 댄스 무대와 뷰티헬스전공의 메이크업, 헤어, 피트니스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갈라쇼의 디자인은 홍보팀과 산업디자인전공, 무대영상 제작에는 컴퓨터공학전공 학생들이 참여했다.



Shinhan Culture Collaboration

2017 신한류 갈라쇼 START>>

갈라쇼에서는 오프닝을 알리는 영상이 상영된 후 공연예술학과 K-POP전공 학생들이 K-POP 무대를 선보이고 이어서 뷰티헬스사이언스 학부생들의 피트니스댄스와 공연예술학과 K-POP전공 학생들의 걸스합합 퍼포먼스, 발라드, 뮤지컬 무대가 뒤를 이었다.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학생들의 남·여성복 컬렉션과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뷰티헬스전공(헤어) 학생들이 보여준 환타지 메이크업 쇼는 각자 다른 개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전제적인 의상과 메이크업 색채의 통일성을 보여주었다.

갈라쇼의 후반부에서는 공연예술학과 K-POP 학생들의 '청춘'이라는 노래와 함께 캠퍼스 차원에서 시도한 융·복합 잔치의 출발을 자축하는 듯했다.



<최수민 기자>





2017 ShinHanRyu Street Dance Contest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Street Dance Contest

최고의 스트릿댄서를 가리는 꿈의무대

총 79팀 및 개인이 각자의 특성을 살린 인상적인 댄스 선보여
K-POP 및 한류에서 핵심적인 대학임을 재차 증명

신한대학교는 2017년 10월 28일 의정부캠퍼스 에베에셀관 원형극장에서 제3회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신한류 K-POP 뮤직페스티벌,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콘테스트와 함께 신한대학교가 신한류를 주제로 주최하는 3대 대회중 하나로 꼽히는 이번 대회는, 특히 지난 대회와 비교하여 참가자 수와 상금 규모면에서 크게 발전하여 많은 댄서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스트릿댄스란 대중문화 기반의 춤을 일컫는 말로서, 전문적인 댄스 스튜디오가 아닌 길거리나 클럽 등에서 쉽게 접하고 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모두 79팀 및 개인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K-POP 전공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이우재(FIRE), 김광수(CrZay Kyo), 박진성(Knukl), 장유진(Halo), 최준호(J-HO) 등 업계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전문 댄서들의 심사 하에 이루어 졌다.



참가 자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은 덕에 이번 대회에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유명 댄서부터 이제 막 댄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학생까지, 각양각색의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여들어 각자의 실력을 겨루었다. 특히 눈에 띄는 참가자는 한국 1세대 댄서로 이름 높은 '팝핀 현준'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댄스그룹인 'Fusion M.C'였는데, 두 참가자(팀)은 각자 개인 및 대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특히 개인부문 대상 수상자인 '팝핀 현준'은 춤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번 이상은 들어 보았을 한국 댄스계의 전설과도 같은 인물로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초청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실력자가 굳이 콘테스트에 참전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는 등 심사위원과 관객, 심지어 같은 참가자들로부터까지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공연 후 심사위원으로부터의 질문 코너에서, 그는 이번 대회에 참여한 이유를 묻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다가, 말로 백 마디 조언하는 것 보다 동등한 참가자의 입장에서 함께 땀 흘리고 춤추는 것이 더 좋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팝핀 현준이 춤에 대해 가지는 애정은 수상소감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이번 대회에 참여한 이유 중에는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댄스 전공 커리큘럼이 있는 대학에 대한 흥미도 있었는데, 대회의 수준을 보니 과연 기대할 만 하다. 앞으로도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가 끊임없이 발전하길 바라며, 특히 이런 좋은 대회를 개최해 주신 신한대학교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팝핀 현준은 개인부문 대상 상금 전액을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발전에 위하여 신한대학교 측에 기부하였다. 신한대학교 관계자는 "최고의 스트릿댄서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번 콘테스트는 스타탄생의 확실한 등용문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사회에도 문화 향유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treet Dance Contest

브라보스튜디오, Inco the deep, 20th century b-boys, Five nines의 협찬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선 대상 수상자로 단체 부문에 Fusion M.C, 개인 부문에 팝핀 현준, 금상 수상자로 단체 부문에 Unlockthesoul, 개인 부문에 이문세가, 은상 수상자로 단체 부문에 SEENSTEELER, 개인 부문에 최윤수가, 우수상 수상자로 단체 부문에 Funk real move · glorylights · HHU, 개인 부문에 연준희 · 강상준이, 장려상 수상자로 단체 부문에 A·YOUTH · D2 KIDS · D · OPINO, 개인 부문에 박현우 · 박세찬이 각각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2017 신한대 경원선 국제 평화 사이클 대회

철마는 달리고 싶다

신한대학교가 올해 평화통일 기원 국제 마라톤 대회를 창설한데 이어 지난 12일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 사이클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500여 명의 사이클 동호인들이 참가해 겨울의 시작을 알리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레이스를 펼쳤다.

이번에 처음 열린 '2017 신한대 경원선 국제 평화 사이클 대회'는 신한대학교에 대해 지역 전체에 학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두천 시민과 함께 하며, 친환경적인 자연생태를 알리는 홍보의 장을 만들어 시민들과 참가자들이 신한대학교와 지역사회에 갖는 관심을 증진시켰다. 궁극적인 목표는 미군부대 철수로 인한 동두천시의 침체를 이번 대회를 통해 두드림 이미지를 재창출시키고, 경원선의 마지막 역인 신탄리역을 반환점으로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기리는 것이었다.

레이스는 12일 오전 8시 신한대학교 동두천캠퍼스를 출발해 반환점인 자향교차로를 돌아 출발지로 돌아오는 약 70km 구간에서 펼쳐졌고, 레이스 코스는 신한대 동두천캠퍼스→동두천 중앙역→보산역→동두천역→소요산역→한탄대교→연천대교→신탄리역 자향교차로(반환점)→상패교 사거리 좌회전(강변로 진입)→신천교→다리 우회전→동두천시민회관 좌회전→신한대학교 동두천 캠퍼스에서 마무리되었다. 경기종목은 개인, 단체, 단체혼성 3개로 구분해 진행됐다.

개인전은 나이별로 블루(1976년 이전 출생), 레드(1978년 이전 출생), 실버(1956년 이전 출생)로 나뉘었고, 단체는 5인 1팀, 단체혼성은 남자 3명, 여자 2명이 팀을 이루어 경기가 진행됐다. 선수들의 안전과 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자향교차로(1시간 20분), 사랑동 삼거리(2시간), 피니시 라인인 동두천캠퍼스(2시간 50분)에서 3차례 컷오프를 실시했다.



시상은 개인전의 경우 전체 1~3위 10~20만원, 블루·레드·실버 1~3위 3~10만원, 단체·단체혼성 1~3위 10~20만원을 수여했으며 기념품도 증정했다. 이날 신한대학교는 '2017 신한대 경원선 국제 평화 사이클 대회'가 지역주민의 화합과 축적 성격으로 열리는 점을 감안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먹거리 부스도 운영했다. 이번 대회는 통일을 기원하는 지역주민의 뜻을 한데 모아 경기북부와 신한대학교가 동참하는 가운데 개최됐다는 점에서 경기북부의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음을 의미했다. 특히 개발과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는 스포츠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신한대학교를 매개로 한 지역 동호인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역화합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치현, 차수빈 수습기자〉

군장병을 위한 재미있는 인성교육 & 공연 프로그램

신한대학교 로고스봉사지원단 지역사회서비스센터와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에 주최 하에 이루어진 '스토리가 있는 Character SONG 콘서트'에서는 명곡과 OST를 즐기면서 성격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음악을 해설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음악과 교육을 함께 즐기는 시간이 이루어졌다.



음악과 교육의 만남 스토리가 있는 人.知.軍.락 Concert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2개월에 걸쳐 '스토리가 있는 人.知.軍.락 (인지군락) 콘서트'가 개최됐다. 1군단 예하부대에서 열렸던 '스토리가 있는 人.知.軍.락(인지군락) 콘서트'는 1군단 장병 12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콘서트는 군, 관, 학의 연계 하에 이루어졌으며, 군장병들의 인성교육과 공연을 위한 별도의 전담팀이 구성되어 군 장병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 공연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이번 해에 처음 열린 '스토리가 있는 人.知.軍.락(인지군락) 콘서트'는 후기 청소년기에 속한 장병들이 군복무를 통하여 창의인성능력을 배양하고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주최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교육과 공연이 분리되던 방식과 달리 교육과 공연을 연계하여 진행 되었기에 교육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콘서트는 간단한 프로그램 소개 후에 '군장병을 위한 인성교육', '스토리가 있는 Character SONG 콘서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시간 순으로 이루어졌다.

신한대학교 로고스봉사지원단 지역사회서비스센터의 주최 하에 이루어진 '군장병을 위한 인성교육'은 '인성 알고 이해하기'와 '참여장병과 대학생이 함께 나누는 톡!톡!톡!'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군장병들은 인성이란 무엇인가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성과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군입대 전과 입대 중, 입대 후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토리가 있는 人.知.軍.락(인지군락) 콘서트'는 기존의 획일화되어 있던 교육과 위문공연형식을 과감하게 탈피했다. 이는 단순히 지루

한 일방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교육에 대한 군장병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을 도와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콘서트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생들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군 입대 전에 군 장병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병영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 세대 청년들이 지녀야 할 자세와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기존의 보편화되어 있던 틀에서 탈피했지만 군장병들과 학생들이 즐기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교육을 받는 이들이 효과적으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스스로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I N T E R V I E W

전 의정부시장 김문원 석좌교수

참다운 신한대생은
한계를 극복하는 학생이다

‘무한도전’은 청춘의 특권...

신한대 창학이념 그리스도정신 잊지 말아야

종합대학 신한대학교의 성장가능성은 무궁무진, 한반도의 최고대학 될 것

석좌교수(Endowed-Chair Professor)는 해당 학문분야에서 연구 업적이 탁월한 국내외 대학교수나 정치인, 고위 공직자, 언론인 출신으로 현직에 있을 때 쌓은 학식과 지혜를 후학에게 전수하는 사람이다. 거의 평생을 한 분야에서 연구와 전공을 천착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지적 성취와 노하우를 확보한 사람들이다. 신한대학교는 종합대학 출범 이후 통일연구, 행정, 경기북부개발, 산업 등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전문가를 대거 석좌교수로 영입하여 연구풍토를 살찌우고 있다. 석좌교수는 연구와 특강을 통하여 해당분야에서 기존 교수와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대학발전에 필요한 대외활동도 펴고 있다. 김문원 석좌교수도 그 가운데 한 명이다.

경기도 양주 출신 김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신문기자와 2선 국회의원을 거쳐 2002년부터 두 차례 의정부 민선시장을 역임한 뒤 신한대 석좌교수로 영입됐다. 김 교수는 “참다운 신한대 학생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학생”이라고 말했다. ‘한계 극복’은 도전정신의 또 다른 표현이다. ‘무한도전’이 청춘의 특권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목표에 대한 확신을 지렛대로 삼아 소질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청춘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다. 김 교수의 ‘강의마당’은 경기북부지역 거주 인사들이 제2의 삶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축적하는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이다. 그는 이곳에서 정치, 행정, 언론 분야에서 축적한 지

식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 재학생들에 대한 김 교수의 관심은 평생교육원 수강생에 못지않다. “신한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지침을 학생들이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신한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방향은 첫 번째, 정신(spirit), 두 번째는 희생과 봉사(service), 세 번째, 협력(synergy), 네 번째, 전문인 양성(specialize)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훌륭한 교육방향을 캠퍼스 생활에서 익혀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는 전문가로 성장해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못지않게 희생과 봉사라는 덕목을 몸에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신한대학교는 기독교정신을 창학 이념으로 개교한 대학인만큼 이타적(利他

的) 삶이 요구된다는 것, 자신을 석좌교수로 임명한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했던 김병욱 총장의 말은 남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정신을 삶의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정부시장 시절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 시장 출마 때 공약 ‘녹색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주차장을 연상시킬 만큼 차가 많아 복잡했던 중앙로를 지금의 차 없는 거리 행복로를 조성했고 친환경 교통사업의 하나로 경전철을 도입했다. 퇴임 후 의정부에 뿌리를 내린 것은 오랜 기간 의정부에 살았던 만큼 이곳 사람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김수정 기자〉

✓석좌교수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합대학 신한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저의 경험과 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해 좀 더 좋은 세상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 스스로도 노력해야겠지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연구를 통해 채워나가면서 신한대학교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한대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신한대학교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보다 바람직한 교육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한대학교가 훌륭한 교육지침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좋은 인재를 길러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훌륭한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 신한대 학술제



2017. 10. 26 ~ 27 신한인 다함 신한대 학술제 GO~

흥미와 취업을 한번에 잡다!

10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2017 신한대학교 학술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종합대학 편제완성의 해를 맞아 진행된 이번 학술제는 체험행사는 물론 논문 발표, 학술강연 등으로 내용의 깊이와 관점의 다양성으로 새로운 대학문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신한인의 정체성을 확인 할 수 있는 행사였다. 또한 학술제는 또한 각 학과와 학부전공이 풍부한 내용과 독특한 발상으로 펼친 전시와 각종 행사를 통해 경기 북부 중심대학 신한대학교가 새로운 학술제의 모범예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번 학술제는 학생들의 취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현실을 반영해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강연행사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환영을 받았다. 학술제에 참가한 각 학과는 전공분야 연구 및 발표를 통해 교수, 외부강사 및 학생 등이 학술연구논문을 공유하고 전공이론과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또한 그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발표와 창작품을 선보이는 작품전시회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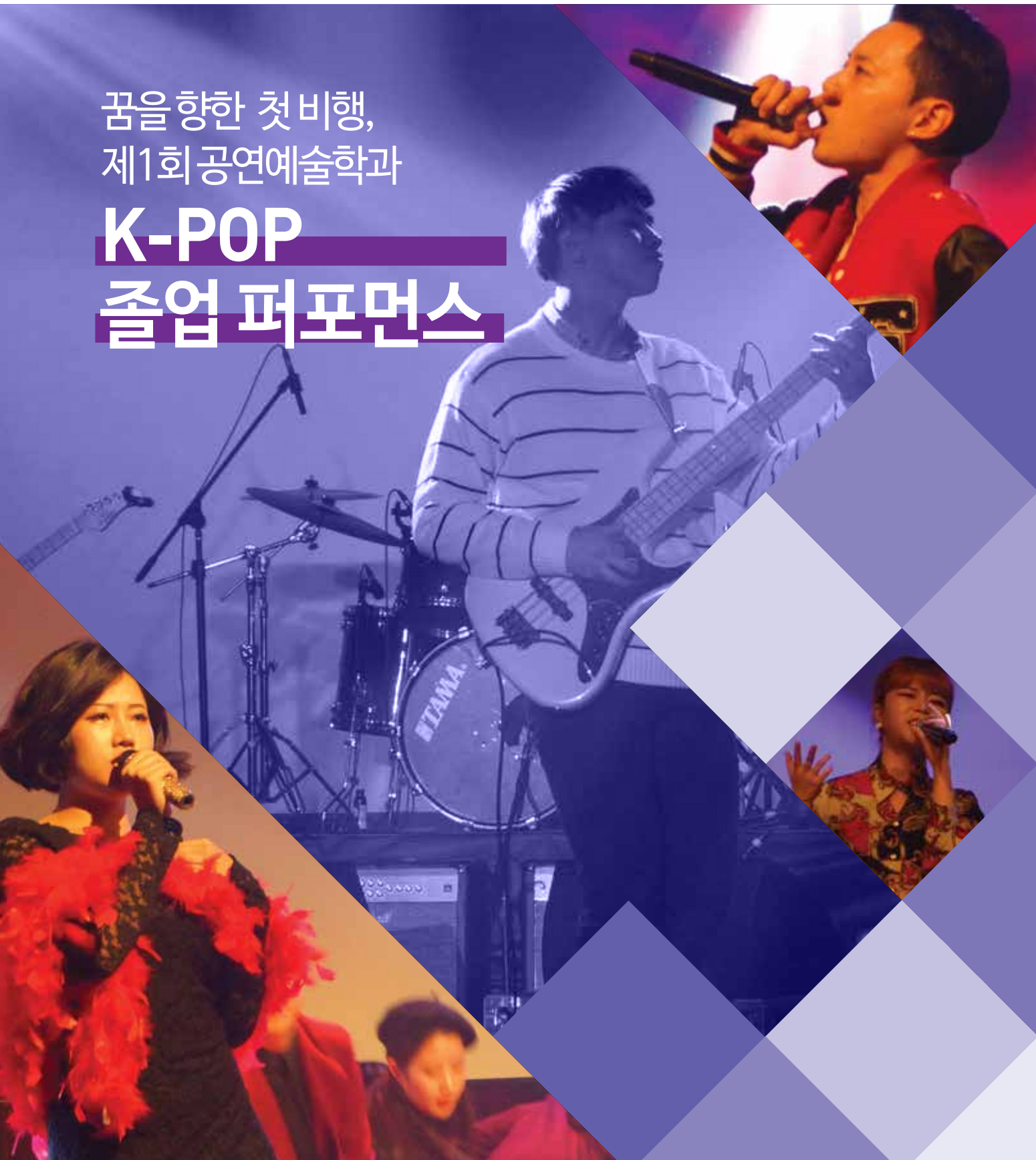
디자인학부 학생들은 그동안 창작한 작품을 전시했고, 공연예술학과 K-POP 전공 학생들은 신한류 스트리트댄스 콘테스트를, 연기 전공 학생들은 '문제적 인간 연산'이라는 졸업공연을 통해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등 실기 중심의 학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간 익힌 기술들을 선보였다. 간호학과는 기초의학, 임상간호과정 등의 작품을 전시했다. 글로벌관광경영학과는 글배우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으며, 글로벌통상경영학과는 모의무역 경진대회를 가졌다. 또한 언론학과는 2018년부터 바뀌는 학과명에 대한 공모전을 열었다. 중앙도서관은 '신한인, 여행으로 나를 완성하다'를 주제로 대한민국 전국 각지의 여행명소에 대한 사진과 영상, 그리고 관련 추천도서를 소개하는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해 신한인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 각 학과 외에 동아리활동도 관심을 끌었는데, 특히 사진동아리 아람은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작품을 전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학술제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 분야는 바로 취업이었다. 학생들은 “기존의 보여주기식 학술제가 아닌 내실 있는, 실용적인 학술제를 지향해서 오히려 더욱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각 학과에선 기업과 연계된 박람회, 특강, 학술연구, 논문발표, 세미나 등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주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꿈을 향한 첫 비행, 제1회 공연예술학과 K-POP 졸업 퍼포먼스



지난 11월 16일, 신한대학교 벨엘관 세미나실에서 공연예술학과 K-POP 졸업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이번 공연은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K-POP전공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였으며 박경서 교수의 총괄기획, 주영훈 교수 외 10명의 음악 지도, 문병순 교수 외 4명의 댄스 지도로 기획되었다. Neo core와 New one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공연에서 진행을 맡은 공연예술학과 주영훈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더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였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공연은 17개의 무대는 밴드와 보컬, 댄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다양한 장르의 K-POP으로 이루어져 흥을 돋구었다. 공연예술학과 K-POP전공 소속의 학생들로 구성된 무대는 신동찬 외 5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의 연주곡 ①이 공연의 막을 열었으며 이혜정·이상화 학생의 Something New가 뒤를 이었다. 이후 김호준·임권희 학생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장재호·서재경·강유빈·서진욱 학생의 발매, 김영재 외 학생 세 명의 MYSTIC VONZ, 김지은 학생의 밤하늘, 이재권 학생의 Paradise, 이유진·우원경 학생의 댄스공연, 김호준 학생의 하루를 살아, 김승민 교수 외 18명의 청춘(靑春)으로 무대가 이어졌다.

이후 신동찬 외 5명의 학생들이 밴드 연주곡②를 선보였으며 이유은·김문경 학생의 어쿠스틱 메들리, 고시윤·김지영·이지영·임정연 학생의 POWER, 이흥신 학생의 크림프 술

Neo core와 New one

로 댄스공연, 노유성 교수 외 학생 11명의 힙합 공연, 박예은·김민지 학생의 아버지, 그리고 공연예술학과 K-POP 전공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여 선보인 연예인 무대를 끝으로 졸업 퍼포먼스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공연예술학과 K-POP 졸업 퍼포먼스는 제1회로 신한대학교와 한북대학교의 통합으로 신한대학교가 4년제 종합대학교로 출범한 지 4년이 된 올해, 첫 졸업생을 낸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음악과 춤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만들어낸 이번 퍼포먼스는 지난 4년 간 학생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는 졸업 무대이자 그들이 가진 음악과 춤에 대한 열정을 나타낸 꿈을 향한 첫 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졸업 퍼포먼스는 학생들의 노력과 열망으로 빛어진 멋진 공연과 무대를 비추는 화려한 조명, 전문적인 무대세팅과 음향장비로 실제 연예인들의 콘서트를 보는 것을 방불케 했다.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더 높이 날아올라 꿈을 이루기를 바라본다.

〈이송은 기자〉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패션산학협력프로젝트 품/평/회

실무중심 커리큘럼 개발을 통한
보다 발전된 창업특화대학으로
자리매김 예정



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은 지난 11월 29일 경기 섬유지원센터에서 2017년 4학년 2학기 동안 진행한 '패션산학협력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품평회를 진행하였다.

2017년 2학기 동안 경기지역 섬유업체 대표님의 강의로 디자인 R&D 사업의 모델링을 진행하였으며 디자인은 물론 경기북부의 섬유업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패션 브랜딩을 진행하였다.

경기섬유발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신유지 교수의 지휘 아래 패션디자인 전공 4학년 22명의 학생들이 총 4종류의 브랜딩을 완료했다. 또한 패션디자인 뿐만 아니라 시각디자인 분야로 영역을 넓혀 로고와 이미지, 나아가 패키지 디자인까지 원스톱 브랜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불어 이번 품평회는 판로 개척과 지역 주력 섬유산업에 대한 이해, 무엇보다도 지역 기업에게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이 지향하는 실무교육중심 커리큘럼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북부특화산업 이업종 융합·교류회 운영사업의 결과보고 및 품평회를 진행하였으며 4 종류의 브랜드 중 가장 일반적이고 판로개척에 유리한 남녀 성인 양말 'ETRE(에뜨레)'를 런칭하였다. 'ETRE'는 '새롭다'라는 뜻으로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4학년 재학생 이다빈, 송민기, 윤희 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린라이프를 지향하는 친환경 양말 브랜드로 부영모방의 특허 섬유인 닥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였다. 에뜨레 팀은 경기북부특화산업 이업종 융합교류회 시제품 품평회에 참가하여 경기북부의 다양한 섬유업체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에 관한 제안과 타분야와의 융합방안을 모색하며 실무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었다. 현재 에뜨레 제품은 '경기기업홍보관'에 전시되어있다.

신한대학교는 2017년 8월 29일 전국 20개 대학이 참여한 '경기니트 패션쇼'에서 패션디자인전공4학년 유정화 학생의 양주 시장상 수상을 시작으로 경기 섬유 패션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영모방과의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으로 2018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이처럼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은 다양한 실무중점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한 단계 발전된 창업 특화 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차수빈 수습기자〉

FASHION DESIGN



지혜의 탑을 쌓아올리는 디딤돌,

신한인 다독상 시상식



12월 1일 중앙도서관 4층에서 제 4회 신한인 다독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신한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책 읽는 대학 문화조성 프로그램'이란 주제로 4회째를 맞고 있으며 신한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들의 독서활동을 독려하고, 올바른 독서습관을 기르고자 진행된 장기 프로그램이다.

수상자는 재학생과 교직원 중 프로그램 진행 기간인 올해 5월부터 10월 말까지 독서량이 가장 많은 후보자를 1차로 선정해 중앙도서관의 2차 자체 심사를 거쳐 3차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되었다. 수상자들에게는 학생 부문과 교직원 부문으로 각 2개 부문에서 수상 및 장학금과 문화상품권 혜택이 주어졌다.

대상은 공간 디자인학과 3학년 안수진 학생으로 70만원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졌다. 안수진 학생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출 기준으로 모두 167권을 읽었으며 이 가운데 문학부문은 105권, 사회과학분야 18권, 예술분야 16권, 철학분야 11권을 읽었다. 으뜸상(2위)은 공법행정학과 3학년 이소라 학생, 버금상(3위)은 간호학과 2학년 최승주 학생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서 복돋움상(4위)에는 식품영양학과 3학년 황은진 학생, 돋움상(5위)은 간호학과 2학년 최진희 학생이 수상했으며 학생들에게는 많은 축하의 박수가 이어졌다. 그 외에도 장려상(6~9위)에 4명의 학생과 격려상(10위~15위)에 6명의 학생이 뒤를 이었다. 다독상은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들에게 주어졌는데, 교수 부문에는 전자공학전공의 이진주 교수가 수상했으며 직원 부문에서는 IT융합공학부의 노승은 조교가 수상했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재학생과 교직원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고, 이번 신한인 다독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학 내에 독서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좋은 독서습관을 키우기 위해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신한인 다독상 행사는 상을 수상한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으

며 이날 시상식에서 이름을 올린 총 17명의 학생과 교직원은 그동안 많은 양의 독서를 통해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쌓아 주변의 모범이 되었다. 수상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신한인의 모범이 되어 꾸준한 독서를 약속했으며 책에 대한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이번 '신한인 다독상 프로그램'을 비롯해 주기적으로 신한인 필독권장도서 100선과 2017년 중앙도서관 월별 추천도서를 선정해 신한인들에게 보다 더 좋은 책 읽기를 권장하고 신한대학교의 독서 문화를 앞장서서 꾸려나가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수경 기자〉





학교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 협력관계 약속! 박남팔 (주)골드론 대표이사, 김병옥 신한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지난 2017년 11월 9일, (주)골드론이 신한대학교 측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증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제1캠퍼스 총장 접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신한대학교 김병옥 총장은 이날 장용운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한 대학관계자들과 함께 장학금 기부에 대한 감사패와 감사인사를 전했다. 지난 달 신한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은 (주)골드론은, 이번 장학금 전달을 계기로 신한대학교의 발전과 회사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주)골드론과 신한대학교 간 산학협력 협약은 산학간 연계체제 확립은 물론 교수의 연구 및 교재 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 산학간 인력 및 시설활용, 현장실습 및 취업 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상호간 발전을 위한 것으로,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오늘날 대학과 회사 양측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약은 융·복합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두 조직의 결합인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주)골드론은 국내 최고의 드론 하드웨어 개발생산능력과 농업방제기술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회사로, 다양한 드론 관련 기술을 개발 및 상용화하여 국내 드론시장의 선도자로 인정받는 한편 세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역량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현재는 드론방제 대행 업무를 시행하며,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드론조종사 자격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현규 기자>

(주)골드론,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해 장학금 1,000만원 기부



대학생의 삶이 있어야만
세상이 상투가 된다

언론학과 학과장
윤상길 교수



학생 가르치는 일을 평소 보람으로 여기던 필자에게 요즘 심각한 고민 하나가 생겼다.

가르치는 자가 아무리 잘 준비하여 가르치려고 해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르침을 심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일부 대한민국 대학생들 사이에 교수에 대한 '학생 갑질'이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평소 인재개발처에서 주최하는 학습법 특강 등에 학생이 별로 관심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 디자인 씽킹이라는 교수법 특강을 통해 요즘 대학생들은 과제가 많은 것을 극히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었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수동적이지만 공격적인) 태도가 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일종의 '갑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왠지 씁쓸하기까지 했다.

왜 학생들은 잘 가르치고자 하는 교수들의 뜻을 거부하는 것일까? 고민은 더 깊어만 갔다.

'청년의 삶'을 주제로 한 교양강의에서 신한대학교 대학생들의 체험에세이를 접할 수 있어서 남보다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자부하던 필자였지만, 어렵듯이 이것이 희망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의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만 아른 거릴 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높은 취업의 벽을 넘어야

하는 '다포세대'의 조건, 가혹한 청년들의 삶의 조건이 작용해서 일까? 그러나 높은 청년 실업률의 문제는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겪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그늘이지 않던가? 기성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 또한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던가? 어찌되었든 고민에 대한 답은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나와야 하지 않을까?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을 낳고 있을 즈음, 고민해결의 실마리는 <식민지 트라우마>라는 책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찾아왔다. 이 책에서는 "제국주의(서구), 식민주의(일본), 그리고 근대주의(서구문명)에 의한 조선민들의 모욕과 수치가 뒤섞여 있었고, 식민지화의 역사는 식민지인에게 히스테리성 공격성과 체제에 대한 철저한 순응이라는 모순된 심리적 반응을 신체와 감정에 응축시켜 놓았다"는 구절이 있었는데, 필자에게는 조선민을 청년으로, ~주의를 기성세대로 바꾸면 기묘하게도 현재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구절이라 느껴졌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체성 혼란을 느끼고 있기에 기성세대 대한 공격성과 순응성이라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감정적 결론에 도달하였다.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리고 신한대학교의 대학생은 '지금 이 현실에 존재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듯

하다. 정체성 혼란은 자신이 서 있는 정확한 위치에 대한 혼란이며, 자기 위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세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 또한 갖지 못한다. 기성세대가 세워놓은 기준을 절대화시켜 이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청년은 기성세대에 순응적으로 대응하지만, 중학교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기성세대의 압도적인 힘에 눌러 무력감을 경험한 청년은 (자신을 무력상태로 밀어 넣은 트라우마를 정복하기 위해) 자기애적 분노에 사로잡혀 공격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 관건은 '청년들의 무력감' 극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력감 극복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이다.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은, 이 무력감 극복에 기성세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청년 주체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성세대에게 의해 너털너털해진 자신의 인간성을 복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그동안

보여 왔던 세상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 혹은 소극적 공격성을 털어버리고,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자기에게로 나 있는 세상으로의 '문'(門)을 나서는 것이어야 한다.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문' - 그것이 교양이나 전공수업이던, 아니면 총학생회의 행사던, 또는 봉사 동아리와 같은 대외활동이던 - 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신한대학교 대학생의 세상에 대한 참여는 멀게는 대한민국의 미래, 가깝게는 신한대학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작은 발걸음이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이유들이 존재한다. 우리 대학교도 마찬가지이다.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과 대학교에 대하여 자기애적 분노에 사로잡혀 공격적 행동을 하기보다는, 세상의 현실적 한계가 가진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

는다. 참여라는 소통방식 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대학생의 사회참여가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최근 신한대학교는 학술제와 각종 학과행사, 총학생회의 출범,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등을 겪으며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단계다. 작은 사회, 사회로 나가기 전에 닛는 발돋움인 신한대학교에서 우리는 '참여'에 대해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N포 세대'로 불리며 참여에 대한 무기력함을 겪는 학우들이 있다. 참여는 곧 소통이다. 소통이 없어서는 발전도 이뤄낼 수 없다. 지금의 참여가 곧, 사회로 나가서의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시하고 눈감고 넘어갈 일들로 여기며 '참여'에 멀어지다보면 '소통'에 대한 부재는 더욱 가까워진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참여'에 대한 태도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박은영 기자>

교수칼럼

CULTURE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학술제 초청강연

시인 '글배우'가 말하는

생각
줄이기

01

생각을 줄이는 방법,
나를 사랑하게 되는 시간

지난 10월 27일 금요일 신한대학교 글로벌관광경영학과에서는 학술제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다.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작가 글배우의 초청강연을 열었다. '글배우'(본명 박동혁)는 젊은 청춘들에게 힘이 되는 강연을 연일 이어나가는 젊은 시인이다.

그는 이 날 강연에서 생각을 줄이는 방법을 강연했다.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는 그에게서 걱정과 고민에 대한 차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생각에 대해 전해 들었다. 그는 강연에 열정적이었다. 학생들의 분위기를 살피고 눈짓으로, 손짓으로 강연장에 앉은 학생들과 최대한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학생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라는 자서를 나눠 주기도 했다.

"걱정은 좋은 것이 아니다. 걱정 말고 고민을 하세요. 고민이 좋은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인 우리는 침대에 누워 매일을 걱정으로 채우며 잠들지 못할 때가 많다. 사랑, 미래, 꿈, 인간관계, 과제, 성적... 끝도 없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걱정으로 나를 위해줄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걱정과 고민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좀 더 막연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쪽이 걱정이다. 고민은 해결책을 내기위해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고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자신의 첫사랑에 대한 걱정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칠판 가득 그때의 걱정과 고민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적었다. "이 모든 경우를 걱정했지만 어떤 결과여도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 모든 선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그 순간 나에게 행복한 선택을 하라"는 말을 전했다.

행복한 선택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고민을 해보자. 나의 행복에 가까운 쪽을 선택하는 고민으로 보내는 시간은 아깝지 않다. 고민도 걱정도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행복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구겨지고 버려지고 던져져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글배우는 어려웠던 자신의 유년시절과 어머니가 주신 희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모두가 그의 어머니가 주신 사랑과 그가 살아온 인생에 소중함을 느낄 때 쯤, 스케치북 종이를 한 장 꺼내들었다. 그 종이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적었고 종이는 청중에게 돌려졌다. "구겨도 좋고, 던지고 밟아도 좋습니다." 그의 말에 따라 자리에 앉은 학생들은 종이를 옮겨가며 구기고 던지고 밟았다. 종이가 다시 그의 손에 돌아갔을 때 강연장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종이를 밟고 구겼다. 펼쳐진 종이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어려움이 많은 세대라고들 한다. 청년실업률은 날로 높아져가고 서민경제고통지수도 높아졌다. 성공이 불투명하다 못해 아득해져가는 것 같은 이 시대에서 사회에 나갈 여린 초년생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한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는 상처, 남에게 받는 상처, 가족에게 받는 상처 등 자꾸만 구겨지고 버려지고 던져지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을 것이다. 아무리 구겨져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귀하게 자란 소중한 자식이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의 강연은 끝이 났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려도 좋으니 꺾이지 말자. 그는 강연을 통해 우리가 가진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행복한 선택을 하자." 많은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의 많은 날들을 바꿔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박은영 기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던 장점과
단점은 존재해요.
그 순간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하세요.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글배우의 <생각 줄이기> 강연 중

02

자연 그 자체를 사랑한 화가, 클로드 모네

모네,
빛을 그리다

CULTURE

프랑스의 화가로 인상파 양식을 창시한 클로드 모네는 1840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소년시절 영국 르 아브르에서 화가 외젠 부댕을 만나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며 외광묘사를 배웠고, 이후 풍경화가 요한 바르톨드 용킨트를 만나 대기 중의 빛을 포착해내는 기법을 익혔다. '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 원칙처럼 모네는 캔버스에 빛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빛을 그리며 자연을 동경했고, 물 위로 반사되는 빛을 캔버스에 담으며 이같은 만물을 통해 우주를 그려내고자 하였다. 특히 말년의 작품인 '수련'은 자연에 대한 우주적인 시선을 보여준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클로드 모네의 일생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카미유 동시외이다. 카미유는 모네의 영원한 뮤즈이자 아내로, 모네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카미유를 모델로 56개의 작품을 그렸으며 심지어는 카미유가 임종을 맞은 모습까지도 화풍에 담아내었다. 서울 속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본다빈치 뮤지엄에서는 르네상스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주제로 한 전시회 '모네, 빛을 그리다'가 한창이다. 양코르연장으로 2018년 3월 4일까지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모네의 일생에 대한 소개와 작품을 다룬 [클로드모네: 빛의 초대], 모네가 추구한 자연주의를 느낄 수 있는 [지베르



〈출처: 모네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

니 연못: 꽃의 화원], 움직이는 수련과 물 위로 비춰지는 세상을 보여주는 [미디어 오랑주리: 수련 연작], 모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뮤즈를 다룬 [영혼의 뮤즈: 그녀 카미유], 형형색색의 빛으로 가득한 정원을 걷는 듯한 [빛의 모네: 환상의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캔버스로만 볼 수 있었던 모네의 작품을 입체적인 사물로, 향기로, 빛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스크린을 통해 작품을 움직이게 하여 시각적으로 재미를 주었을 뿐 아니라 전시회장 곳곳을 채우는 환상적인 빛의 향연은 전시되어 있는 모네의 작품과 어우러지며 감동을 선사한다.

모네는 그가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을 캔버스 위로 쏟아냈다.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은 5월의 어느 날인 듯 한없이 따스하며,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헤엄치는 연못처럼 맑고, 시간이 지나가는 모든 하늘을 담아낸 듯 신비롭다. '모네, 빛을 그리다' 전시회에서는 작품 뿐 아니라 모네의 일생, 작품에 대한 설명에도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 그것을 통해 모네의 작품에 담긴 따뜻한 빛과 만물에 대한 동경을 알게 된다면 왜 1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받는 작품인지, 사랑받는 화가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송은 기자〉

MONET

03

소설가 김애란 단편소설

달려라,
아비C
U
L
T
U
R
E

제 3자, 어쩌면 영원한 타인에 대해

김애란 작가는 인간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심리상태를 그의 특유의 시각으로 묘사하듯 날카롭게 비판한다.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복합적인 심리상태를 다룬 『비행운』과는 다르게 『달려라, 아비』는 비교적 가벼운 소재로 인해 스스로를 성찰하는 느낌이 강하다. 또한 자신과 상대, 혹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관계성을 특유의 간결하며 부드러운 어체로 묘사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통찰이다. 세밀한 감정묘사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책의 내용 중 「영원한 화자」를 통해 알 수 있다. 제목에서 나오는 '영원한 화자'란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 자신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세계에서 제 3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자신만의 고립된 세계를 깨기도 한다.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타인에게 나란 어떤 존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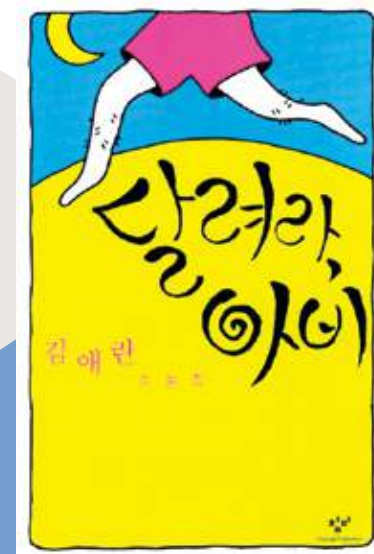
항상 기대하게 되지만 타인에게 나라는 존재 또한 타인일 뿐이다. 자신이라는 지구 밖에 작은 외행성. 그 정도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싶어한다. 관심 받고 싶어하며 기억되고 싶어한다. 지구 밖 작은 외행성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화자'와 '제 3자'를 우주라는 공간 안에 하나의 것으로 묶게 만드는 매개체가 있다. 바로 공감이다. 공감은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을 공유하게 만든다. 공감이라는 틀 안에서 타인은 없어진다. 결국 '나와 같은 경험을 할, 또는 했던 '너'가 존재한다. 공유하는 경험, 감정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관계는 타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된다.

이름 또한 타인과 자신을 구분해주며 각 개인에게 특별함을 부여해주는 도구이기도 하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타인에 의해 비로소 자신의 이름이 스스로의 것임을 인지한다. 이때 화자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화자가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어감으로 자신의 이름이 부를지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 자주 질문하곤 한다. 스스로가 어떤 인간인가 대답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러주는 화자가 필요한 청자, 자신이 누군지 말할 때 들어줄 청자가 필요한 영원한 화자이다.

〈최수민 기자〉



당신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내가 아무리 나라고 해도 나를 상상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상상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내 모습인 것이 이상하여 자꾸만 당신의 상상을 빌려오는 사람이다.

- 김애란, 『달려라, 아비』, 영원한 화자



21C는 SHINHAN Super-Versity 시대

기술중심 교육 Super-Tec
인성중심 교육 Super-Persona

교양인양성 Super-Edu
봉사정신 교육 Super-Serve



신한대 간호대학 제2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열려

11월 3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은 제2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제1캠퍼스 에벤에셀관 컨벤션홀에서 115명의 예비 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2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 간호사들은 이날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과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선서를 마친 간호과 학생들은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임상실습과 학업을 병행한 뒤 국가가 공인하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도전하게 된다. 김병욱 총장은 격려사에서 “나이팅게일 정신은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며 신한대학교의 설립이념인 사랑과 박애의 기독교 정신도 나이팅게일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여러분이 신한대의 요람에서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배우고 익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직분을 맡든지,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마음에 새겨 오로지 사랑과 긍휼의 정신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오소영 기자〉

신한대학교, 2018학년도 입시일정 일주일씩 순연해 시행

경북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교육부는 방침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신한대학교는 입시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2018학년도 입시 일정을 일주일씩 순연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시모집 등록 기간은 당초 12월 18일~21일에서 12월 25일~28일로 7일 순연됐으며, 수시 미등록 충원 마감은 12월 28일~1월 4일로 연기됐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당초 12월 30일~1월 2일에서 1월 6일~9일로 변경됐다. 공영예술학과 정시모집 실기고사는 나군 전형 일정 변경에 따라 1월 19일~27일 사이에 실시가 될 예정이다. 정시 합격자 발표는 당초 1월 30일에서 2월 6일로 순연하고, 등록 기간은 1월 31일~2월 2일에서 2월 7일~9일로 변경됐다.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은 2월 20일 오후 9시까지, 최종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일은 2월 21일이다. 또한 추가모집 일정 역시 전형 일정 일주일 순연에 따라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추가모집 최종 등록 마감일은 2월 27일이다. 신입생 모집 일정은 일주일씩 순연될 예정이나 수시모집은 수능 최저학력과 관계없이 선발함으로 수시 합격자 발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치현 수습기자〉



신한대, 3년 연속 그린캠퍼스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 수상

환경부 그린캠퍼스 연차평가에서 3년 연속 신한대학교가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신한대학교는 11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7년 그린캠퍼스 성과보고회에서 고득점 우수대학으로 뽑혀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신한대학교는 2016년 12월 환경부 그린캠퍼스 총장협의회 회장교로 선출되어 2년간 국내 대학이 그린 캠퍼스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그린캠퍼스 공로자 시상에는 신한대학교 이영기 계장(수업학적팀)이 그린캠퍼스 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김치현 수습기자〉

중앙도서관, 12월 이달의 책 추천 《82년생 김지영》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이달의 책으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을 추천했다. 1980년대 가장 흔한 여자 아이 이름을 가진 ‘김지영’이 주인공인 이 책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이던 여성차별을 겪고 자라나 평범한 유년기를 보내고, 결혼해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던 주인공이 정신과에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집계한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순위에서 최근 한국이 13단계 상승한 세계 10위를 차지했다. 이는 188개국을 대상으로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권한(Empowerment), 노동참여(Labour market) 3개 영역으로 조사하고, 모성 사망비율, 청소년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 등의 지표로 측정된다. 이 순위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가졌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의 성차별은 현재진행형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 《82년생 김지영》은 일상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기자〉





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박현철 교수가 이끄는 <제품서비스디자인졸업연구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비롯한 전국 디자인 공모전 대거 수상

2017년 제 52회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에서 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 전공 4학년 신수진·노미선 학생이 <Gold Minister Award 중소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신수진·노미선 학생은 “감성디자인으로 독도를 치유하는 독도약방”이라는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이번 수상은 총 2,000점에 달하는 출품작들 중 당당히 3위에 등극한 것이라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디자인전공 학생 일부는 경기도청이 진행한 ‘디자인 나눔 사회활동 참여 공적’을 기리는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받았다. 수상의 영예를 얻은 학생은 장종민, 최유정, 허재인(이상 경기도지사상), 신수진, 윤여울, 노미선, 김현지(이상 경기도의회회의장상), 오정선, 권예나, 임은정(이상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장상)의 총 10명이다. 신한대학교에선 2017년 한해동안 남양주시니어클럽,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남양주시 신망애이룸터, 하남시 지역자활센터, 김포시 밀알꿈씨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재능기부를 진행하였다.

한편, 서울창조허브에서 진행된 ‘내가 갖고 싶은 드론, 나만의 개성을 입히자’ 공모전에서도 신한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의 수상이 이어졌다. 해당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에 허재인, 김현지 학생이, 입상에 신수진, 최유정 학생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은 2018년 2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가전박람회(CES) 드론 부스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박현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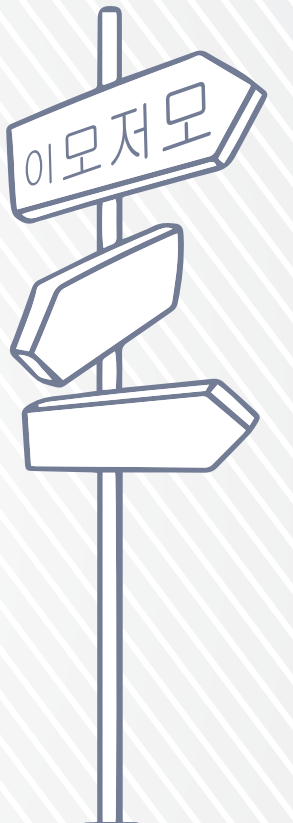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 마음의 고민 해법 찾기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신한대학교 학생상담센터가 재학생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슬로건이다. ‘고민 없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20대는 폭풍노도(暴風怒濤 · Sturm und Drang)의 시기로 정서의 불안정,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 및 사회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청춘은 스스로 서야 할 자리를 확인하게 되고 인생관과 세계관의 열개를 갖추기 시작한다. 신한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많은 학생들은 처음 겪는 캠퍼스생활에서 자신의 진로설정 문제로 고민에 빠지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심지어는 가족의 문제 탓에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신한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신한청춘’이 마음속에 담고 괴로워하는 고민을 듣고 그 해법을 모색해주고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공간이다. 센터는 학생들에게 ‘마음의 집’이 되기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고민을 듣고 마음의 길을 제시한다. 이는 상담기록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린 ‘신한청춘’의 상담건수는 785건. 진로문제, 정서문제, 대인관계 등 상담주제가 중복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청춘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전체 건수 가운데 가장 상담빈도가 높은 분야는 ‘적응 및 정서문제’였으며 자퇴, 진로, 대인관계, 학업문제가 뒤를 이었다.

<김치현 수습기자>



신한대-태국 라자망갈라 대학 MOU체결 합의

신한대학교가 태국 왕립 라자망갈라 대학과 학생교류와 인턴십에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 김병욱 총장과 부총장 보수자비편 교수가 이끄는 라자망갈라 대학 대표단은 11월 28일 의정부 캠퍼스 뽕엘관 세미나실에서 MOU체결에 합의했다. 이번 MOU를 통해 신한대학교 학생들은 라자망갈라 대학 국제대학원에서 진행하는 영어강의를, 라자망갈라 대학 학생들은 신한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한대학교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은 현지 호텔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광관련 연구와 경험을 가지게 되는 등 이번 MOU를 통해 두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민 기자>



신한대, 의정부시와 '도시의 비전과 발전방향' 공동학술대회 개최

경기북부의 핵심도시인 의정부시는 오랜 기간 동안 정책적 확대와 이에 따른 개발지체로 인하여 침체의 시기를 겪었다. 경기북부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남북통일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개발정책과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과잉규제로 지금도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자치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도 기업이 발전하지 못하여 취업이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는 9월 24일 신한대학교와 전환기행정학회와 공동주최로 ‘전환기 도시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분도, 일자리 창출, 관광클러스터 구축, 도시 공간 경쟁력 강화,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자치전략 등을 놓고 전략과 해법을 논의했다. 신한대학교는 분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입장이며 분도가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차원의 발전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차수빈 수습기자>



신한대 치위생학과와의 저력을 보여주다! 전국규모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비롯하여 10개팀 수상의 대기록을 세우다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전국규모 경진대회를 석권했다. 치위생학과 3학년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11월 4일 한국치위생학회 주최로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종합학술대회 학생연구 포스터 경진대회에서 연구논문 심사 결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휩쓸었다. 전국에서 참가한 44개 팀 중 10개 팀이 수상하는 유례없는 대기록을 세워 신한대학의 저력을 보여줬다.

문선호·기은정·김성준·장민지 학생(지도교수 김수경)이 ‘일상활동 구강영향지수(OIDP)를 이용한 치아교정치료 환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만족도 평가’로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문선호 학생은 “교수님이 열정으로 지도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예비치과위생사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와의 저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차수빈 수습기자>



개교 45주년 기념 장기근속공로자 표창

개교 45주년 개교기념식 행사에서 장기근속공로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있었다. 오랫동안 우리대학을 위해 힘쓴 장기근속공로자에게 김병욱 총장이 직접 감사의 인사와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 장기근속 공로자 명단

근속년수	구분	소속	성명
30년	교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이상구
	교원	에너지환경공학과	황재석
	교원	임상병리학과	최승구
	교원	공간디자인전공	이선민
	교원	공법행정학과	황보상원
	교원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이대홍
20년	교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한수범
	직원	총무인사팀	김준기
	직원	파주분원	김영권
	직원	시설지원팀	김종록
	직원	정보화팀	원유민
	직원	학생상담팀	최지연
	직원	시설지원팀	고광칠
	직원	시설지원팀	박선희
	직원	학생지원팀	박주희
	직원	산학지원팀	안선영
	교원	공간디자인전공	조은란
	교원	공법행정학과	김승욱
10년	교원	교양학부	이기찬
	교원	국제어학과	존게리
	교원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홍경오
	교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장용운
	교원	뷰티헬스전공	박소정
	교원	뷰티헬스전공	서수연
	교원	사회복지학과	송노원
	교원	사회복지학과	장정순
	교원	사회복지학과	황희숙
	교원	식품영양전공	김지명
	교원	유아교육과	김지윤
	교원	유아교육과	김민화
	교원	임상병리학과	최화식
	교원	치기공학과	류재경
	교원	치위생학과	정성균
	교원	호텔조리전공	이은정
	직원	평가센터	이인성
	직원	재무회계팀	형서윤
	직원	입학총괄팀	이연수

<박현규 기자>



국제어학과 전현주 교수, 꿈꾸는 신한인들에게 한마디

신한대학교 국제어학과와의 전현주 교수가 청춘들에게 글로벌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지구촌 사회에서 세계 각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더 확산되고 있다며 다른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면 함께 사는 세상의 중요함을 알게 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학생들과 유학생들 사이에서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며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은 부모보다 시대를 닮는다.’라는 말이 있다. 전 교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이 다문화 글로벌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를 닮으려고 노력해야한다고, 함께하는 유학생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에 맞추어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차수빈 수습기자>



국제어학과에서 청춘의 꿈을 키운다

‘학과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

국제어학과 박소정(2학년) 학생 칼럼의 일부이다. 지난 2016년, 신한대학교 국제어학과에 입학한 박소정 학생은 각종 캠퍼스 행사를 통해 스스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박소정 학생은 국제어학과에서 이루어진 행사들 중 가장 의미 있던 프로그램으로 ‘신한 멘토링’과 ‘제1회 도봉구청 외국어체험 봉사활동’을 뽑았다. ‘신한 멘토링’에 멘티로 참여했던 박소정 학생은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 학교생활이나 공부에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은 박소정 학생은 작년에 이어 ‘신한 멘토링’에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이 받았던 것들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제1회 도봉구청 외국어체험 봉사활동’에서는 학과 사람들과 함께 중국 문화에 관련된 체험부스를 만들었다. 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신한대학교 국제어학과를 홍보하고, 중국 문화에 대하여 많은 이들에게 알렸으며,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학생의 손에서 탄생한 학과 홍보영상 Learners Today, Leaders Tomorrow

학생의 손에서 학과 홍보영상이 탄생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학과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 이는 신한대학교 국제어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소정 학생이다. ‘G2 글로벌 파워 갖춘 국제어 전문가 양성’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국제어학과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과 활동상황을 담았으며 조속히 학과장을 비롯해 최창영, 전현주, 배영금, 고영아 교수와 초빙교수진의 면모, 학과 시설, 초청강연, 선후배 간의 창업브릿지 멘토링, 해외 인턴십 활동 등 국제어학과 만의 특징을 담아 학과 슬로건인 ‘Learners Today, Leaders Tomorrow’를 부각시켜 학과사랑과 소속감을 보여주었고 나아가 신한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예비 신한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하였다.

<이승은 기자>

대학발전기금기부자명단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과,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 대외협력처 TEL. 031-870-3163 FAX. 031-870-3169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대원	시설지원팀	박효철	공간디자인전공	이은정	호텔조리전공	홍수희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강수철	학생지원팀	배시애	교양학부	이정규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홍승예	학술정보팀
강정원	유아교육과	배영금	국제어학과	이정원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황경숙	치기공학과
강종오	치위생학과	서수연	뷰티헬스전공	이종택	언론학과	황만수	컴퓨터공학전공
곽영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서종원	임상병리학과	이찬주	전자공학전공	황보상원	공법행정학과
권영길	교양학부	송기상	국제교류팀	이청재	치기공학과	황재석	에너지환경공학과
권영일	임상병리학과	송운홍	임상병리학과	임승희	사회복지학과	황희숙	사회복지학과
김경희	유아교육과	신경환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임호진	대외협력팀	남현준	
김기순	산업디자인전공	신용철	임상병리학과	장인봉	공법행정학과	수요예배	
김남용	공법행정학과	신현곤	에너지환경공학과	장경순	사회복지학과	싸이클협회	
김동섭	호텔조리전공	오병칠	공간디자인전공	전법주	에너지환경공학과	김순남	
김문규	학술정보팀	오이균	공법행정학과	전영주	홍보팀	김충곤	
김민정	뷰티헬스전공	오홍진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정세훈	안경광학전공	(주)다일	
김봉건	입학사정팀	우두한	시설지원팀	조규봉	임상병리학과	(주)신라공업	
김상욱	대외협력팀	유병영	대학본부	조상민	시설지원팀	(주)신아이엔지	
김상현	방사선학과	윤상곤	시설지원팀	조성심	사회복지학과	(주)울림건설	
김선명	에너지환경공학과	윤희숙	임상병리학과	조성운	시설지원팀	(주)이스케이프솔루션	
김옥희	교양학부	이강석	시설지원팀	조우택	학술정보팀	CU동두천신한대캠퍼스	
김용섭	교목실	이경희	치위생학과	진선범	교육총괄팀	바로선병원	
김정훈	전자공학전공	이금숙	사회복지학과	진원재	산업디자인전공	송내교회	
김종만	평생교육원	이기찬	교양학부	최병호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주)골드론	
김주현	입학총괄팀	이남전	교학팀	최승구	임상병리학과		
김창수	교육총괄팀	이대성	정보화팀	최에스더	뷰티헬스전공		
김창희	학생상담팀	이대홍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최지연	학생상담팀		
김호성	방사선학과	이동원	학생지원팀	최진영	식품영양전공		
박인춘	교육총괄팀	이명호	호텔조리전공	최화식	임상병리학과		
박주원	유아교육과	이선민	공간디자인전공	한수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박현수	공간디자인전공	이승영	산학지원팀	한승희	교육총괄팀		
박호균	컴퓨터공학전공	이웅배	뷰티헬스전공	홍경옥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 동문		☐ 재학생		☐ 학부모		☐ 법인(기업)		☐ 일반인(비동문)		※ 중복체크 가능	
인적사항	성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학적사항 ※동문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장명							부서명				
								직위				
	주소	(주택)								(TEL)		
		(직장)								(TEL)		
	E-mail							휴대전화				
우편물 수령지	☐ 주택 ☐ 직장						기부 추천인					
약정	총액	금()원 (₩)										
	기간	20 년 월 일부터 총()회 / 월()원씩										
	기부금 용도	☐ 대학발전기금		(용도 미지정) *학교에서 용도를 경하여 사용합니다.								
		☐ 지정발전기금		(지정) * 학과, 연구소 등 사용처 및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학과 장학금으로 지정하신 경우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 CMS	CMS(기부자의 동의하에 기부자 계좌에서 자동출금해가는 방식)										
		결제일	☐ 일				결제은행		은행			
		결제 계좌번호										
		예금주명	☐ 기부자명과 동일 ☐ 기부자명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아래내용 작성) 예금주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 무통장 입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입금자명	☐ 기부자명과 동일 ☐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금자명 :)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의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국제교류원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3 (Fax 3169)
- 우편 : (480-701)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팀

2018.01 / 193호

편집후기

박은영 편집장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수습기자에서 시작해, 편집장으로써 마지막 발행까지 왔다. 임기가 시작하고 다짐했던 1년 4권 발행을 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지금까지 따라와 주었던 기자들에게 이 후기를 빌려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특특 한권을 발행하기 까지 많은 기자들이 수고해주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 신한대학교 신문사 교수님과 기자들이 앞으로도 좋은 기사들을 쓸 수 있는 곳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김민지 기자

코트를 입고 취재를 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호를 집필하게 됐다. 올해 정식 기자가 되고 1년 동안 취재를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간한 모든 호들이 모두 무사히 나오게 되어 뿌듯하다. 마지막 호인 만큼 이번호도 무사히 잘 발간하고 신문사에서의 2017년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김수정 기자

매번 느끼지만 이번 193호는 특히 느끼는 게 많다. 2학년으로서의 마지막이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신한특특을 발간하는 매 순간마다 아쉬움이 남지만 신문사와 함께 한 지 1년 반이란 시간이 흐른 만큼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고, 앞으로도 신문사와 함께 점점 더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박현규 기자

전역 후 신문사로 돌아온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났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호에서도 가장 쓰기 어려운 글은 후기인 것 같다. 글썄, 그냥 열심히 했다는 것 외에 딱히 더 할 말이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와 함께 했던 모든 동료 기자들이 다 함께 노력한 결과가 이번 호 신한특특이라는 것이다.

오소영 기자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다. 저번 호는 정말 더울 때 취재했는데 벌써 겨울이 가까워져 취재를 나가려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한다. 193호가 발간됨과 동시에 내가 신한특특 기자로 활동하며 두 번의 사계절이 마무리된다. 2년 내내 함께한 기자도 있고, 중간부터 함께한 기자도 있지만 활동한 시간에 상관없이 다들 신한특특을 위해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를 썼다. 이번 호도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힘써준 기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 전하고 싶다.

이송은 기자

짧은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왔다. 신문사에 들어와 수습기자로 활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부장이 되어 다양한 기사를 작성한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193호로 2017년 신한특특이 마무리된다고 하니 다음 호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 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면에서 배우고, 성장하여 지금보다도 노련한 기자가 되고 싶다.

최수민 기자

이제 종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름을 지나 겨울로 향해가면서 함께한 신한특특이 점점 더 새로워지길 바란다. 또한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고 싶다. 이번 193호는 졸업작품전이나 갈라쇼 등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을 많이 담아내면서 스스로도 즐거웠던 취재였다.

김치현 수습기자

이번 해에 마지막 신한특특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현장에 나가면서 직접 취재하고 사진을 찍었다. 정말 뜻 깊은 기회였던 것 같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성장하고 싶다.

차수빈 수습기자

반팔을 입던 날씨에 신문사에 들어왔는데 이젠 긴팔에 겹옷까지 입어야 하는 날씨가 되었다. 처음 기사를 작성할 땐 어색했지만 즐거웠고 실습만 하던 내가 기사를 취재하러 갔을 때도 힘들었지만 보람찼다.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하는 나를 기대하며 2017년 신문사에서 11월의 신한특특을 잘 마무리 하고 싶다.



더 센! 창조와 융합교육 | 글로벌 현장교육 | 신한(信韓)류 미래교육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인재양성을 창학이념으로 출발한 신한대학교!
 지난 반세기 동안 기술인재 양성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 센세이셔널한 신한대학교의 비전을 펼쳐 나갑니다!